

전남

품질 검증 안된 영세가내농 마구잡이 유통

해남 절임배추 명성 '먹칠'

겨울배추의 주산지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 가내농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 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 파악된 절임배추 농가 시설업체인 243개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해남 절임배추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일반 배추생산 농가들이 너도나도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어 실제 업체는 400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영세농가들은 등록조차도 받지 않고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위생·포장·기호에 맞는 염분 조절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반포요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해남 절임배추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수원에 사는 주부 서모(42)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소개로 해남 절임배추를 20kg들이 2박스를 주문했다. 나주 배박스에 일반 비닐로 대포장한 것도 불쾌했지만, 절임배

추맛이 너무 짜서 도저히 감정을 할 수가 없었다. 서씨는 생산자에게 전화로 리콜을 요구했다. "다른 사람은 잘도 먹는데 뭐가 그리 까다롭냐"면서 되레 화를 내더라는 것이었다.

현재 해남군에서는 2천여농가가 1천237ha에서 11여만의 김장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절임배추시장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해남절임배추가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위생가공이나 포장디자인 등에

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절임배추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문내면 학동리 주민들은 영농조합을 결성, 체계적인 생산·유통관리를 하고 있어 매년 주민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위해 올해부터 관내 22개의 영농조합과 작목반에 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절임배추·절임서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용국화 따가세요” 함평 국화대전 개막
함평군은 오는 29일까지 '2009 대한민국 국화대전' 행사장인 함평군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입구 1만㎡면적의 국화 들녘에서 관광객들이 식용 국화를 따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 식용 국화 따가기 체험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현장에서 적당한량의 국화를 따가면 된다. (함평군 제공)

함평 119센터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완도타워'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완도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완도타워(사진)가 (사)한국산업디자인 협회가 주최한 2009년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전국의 공공·환경시설물 디자인 평가결과 최고 작품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에서 완도타워는 해양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군민 기상을 형상화한 작품성과 타워 내부의 간결하고 특색있는 전시 연출,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완도타워는 완도군이 총 150여억원을 투입해 대도해 일출공원 내에 설치한 높이 51.4m의 전망시설로 준공 후 국내외 20여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완도 새해 첫날 완도타워에서 금상 수상을 기념하고 새해소원을 비는 '완도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정문조기자 eunjung@



군은 새해 첫날 완도타워에서 금상 수상을 기념하고 새해소원을 비는 '완도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정문조기자 eunjung@

진도 석교고, 2년만에 국악 명문고로 '우뚛'

전국국악경연 등 각종 대회 수상 잇따라

‘국악 특목고’인 진도 석교고등학교 국악과가 국악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개최한 국악과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각종 국악대회에서 대거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석교고에 따르면 국악과 학생 20명 가운데 8명이 최근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관소리, 기악 부문에서 대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해남에서 열린 ‘전국 국악경연대회’ 고법부문에 고등부 추지훈(1년)군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데 이어 문남철(1년)군이 우수상을, 무용부문에서는 김지희(1년), 문남철(1년)군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지난 7일 ‘제1회 강진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관소리 부문에서도 이민지(1년)양이 최우수상을, 기악 부문 김지향(1년)양이 특별상을 받았다.

‘제12회 서원계 보성소리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에서도 전혜미(1년)양이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 학생 경연대회 상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상규 교장은 “이처럼 짧은 학교 역사에도 많은 학생이 두각을 보이는 것은 국악 전공교사와 남도국악원 단원들의 열정적인 지도,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마다하지 않는 피나는 연습의 결과”라고 말했다.

진도=북현영기자 hypark@



‘제12회 서원계 보성소리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에서도 전혜미(1년)양이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전국 학생 경연대회 상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상규 교장은 “이처럼 짧은 학교 역사에도 많은 학생이 두각을 보이는 것은 국악 전공교사와 남도국악원 단원들의 열정적인 지도,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마다하지 않는 피나는 연습의 결과”라고 말했다. 진도=북현영기자 hypark@

순천시의회, 시장 사과 촉구 구례군 내년 예산 2,012억

정원박람회 지적 의원 고소 관련 성명서 채택

노관구 순천시장이 순천만 정원박람회 관련 문제를 지적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과 관련, 순천시의회가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14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현의 시의원을 고소하는 순천시 행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순천시장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 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 채택 여부를 조율했으나 찬성과 반대 의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의원들간 고성 언어가 이어졌고 결국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다.

채택된 성명서는 “시장의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정원박람회 등 대형사업 추진과정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경제적 타당성과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도=정문조기자 eunjung@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 0621367-3005
H.P 011-642-2640

지역	소매지	면적/연면적	잔액	최저가	비고
전남	영암군	계곡면	157/48	131/1	199/199
	영암군	계곡면	119/38	131/1	79/1
남부	진안군	계곡면	109/33	8/1	5/1
	진안군	계곡면	112/34	19/2	8/1
중부	완주군	계곡면	112/34	19/2	8/1
	완주군	계곡면	112/34	19/2	8/1
북부	고흥군	계곡면	112/34	19/2	8/1
	고흥군	계곡면	112/34	19/2	8/1
서부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남부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북부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서부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곡성군	계곡면	112/34	19/2	8/1

• 서구청영 광주세무사연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의 대출(일시)·명도(이사)